



VACHERON CONSTANTIN

GENÈVE, DEPUIS 1755

Les Cabinotiers *심포니아 그랑드 소네리 1860*

2017 년, 바쉐론 콘스탄틴은 최고급 파인 워치메이킹 세계에서 극히 진귀한 컴플리케이션으로 평가받는 그랑 소네리 손목시계를 메종 최초로 선보이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탁월한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모델은 간편한 사용법과 순수하고 간결한 라인의 정수를 구현한다. 독창적인 안전장치를 통해 메커니즘 간의 예상치 못한 간섭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무브먼트는 727 개의 부품이 맞물려 1 시간 및 15 분이 경과할 때마다 소리로 시간을 알려준다. 그랑드 소네리와 삐띠뜨 소네리를 선택하는 스트라이크-모드 셀렉터는 베젤로 작동 가능하며, 셀렉터와 연동되는 미닛 리피터는 크라운 푸쉬피스를 눌러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고도의 복잡함을 간결함의 미학으로 표현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탁월한 노하우를 만날 수 있다.

독특한 매력을 지닌 Les Cabinotiers *심포니아 그랑드 소네리 1860*은 바쉐론 콘스탄틴 역사상 최초의 그랑드 소네리 손목시계다. 2017 SIHH에서 처음 공개된 이 모델은 전 세계에서 오직 소수의 마스터 워치메이커만이 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컴플리케이션일 뿐만 아니라, 심플한 외관과 안정적이고 간편한 사용법을 구현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놀라운 기술적인 위업을 달성한다. 시계를 구동하는 복잡하고 정교한 양방향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인 바쉐론 콘스탄틴 칼리버 1860은 개발에만 10년이 걸린 매뉴팩처 자체 제작 무브먼트로 혁신적인 안전 시스템을 탑재했다. 안전 시스템은 베젤과 크라운 푸쉬피스로 제어되는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을 시계 내부의 상호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단 한 사람의 마스터 워치메이커가 500여 시간에 걸쳐 727개의 부품을 조립하고 미세 조정하여 완성하는 이 무브먼트는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극히 희귀한 최상급의 하이 컴플리케이션으로 사랑받는 그랑드 소네리, 삐띠뜨 소네리, 미닛 리피터를 탑재하고 있다. 화이트 골드 소재로 맞춤 제작 가능한 이 특별한 걸작은 아름답고 순수한 디자인으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무브먼트의 독창적인 구조 덕분에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이 다이얼 밑에 가려지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케이스백을 통해 내부를 감상할 수 있다. 제네바 홀마크를 획득한 이 모델은, 57개의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이자 바쉐론 콘스탄틴을 대변하는 탁월함의 상징으로서 2015년 발표 이래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킨 레퍼런스 57260 모델을 계승한다.

최상의 컴플리케이션

기술적 정교함과 기계식 시계의 시적 표현의 정점인 스트라이킹 시계는 가장 희귀하고 사랑받는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대표한다. 까다로운 워치메이킹 전문성과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기술적 노하우, 민감한 음감의 결합으로 완성된 이 하이 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1 시간, 15 분, 1 분마다 소리로 시간을 알리는 미닛 리피터와 1 시간, 15 분이 경과할 때마다, 혹은 오직 1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자동으로 소리를 울리는 그랑드 소네리와 삐띠뜨 소네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랑드 소네리는 놀라운 수준의 소형화 작업과 기술적, 음향적 복잡성뿐만 아니라 메커니즘 구동을 위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파인 워치메이킹 세계에서 최상의 컴플리케이션으로 평가받는다. 수백 개의 부품이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야 하고 동력 관리와 복잡한 기계식 구조에 있어 최상의 수준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손목시계 안에 담아내야 한다. 그랑드 소네리는 필요한 만큼 차임벨을 울리는



VACHERON CONSTANTIN

GENÈVE, DEPUIS 1755

동시에(24 시간에 최대 96 번의 활성화, 즉 912 번의 올림) 완벽한 음질을 구현하기 위해 항상 충분한 동력이 공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과제였다.

시계 공학의 정점

Les Cabinotiers *심포니아 그랑드 소네리 1860*은 바쉐론 콘스탄틴이 제작한 최초의 그랑드 소네리 손목시계이지만, 바쉐론 콘스탄틴 매뉴팩처가 이 까다로운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개발한 시초는 18 세기와 19 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종은 1827 년 그랑드 소네리와 뷔띠뜨 소네리를 탑재한 포켓 워치를 개발했으며, 1908 년에는 그랑드 소네리와 미닛 리피터를 탑재한 포켓 워치를 발표했다. 19 세기 중반부터 바쉐론 콘스탄틴은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에 크로노그래프와 천문학 기능과 같은 다른 컴플리케이션을 접목한 시계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했다. 손목시계의 탄생과 눈부신 발전을 이룬 20 세기에 이르러 바쉐론 콘스탄틴은 메종의 역사 깊은 노하우를 손목시계 형식에 적용하여, 1992 년에 울트라-씬 미닛 리피터 칼리버 1755 를 발표하고, 2005 년에는 250 주년을 기념해 미닛 리피터와 15 개의 다른 컴플리케이션을 결합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양면 시계를 발표했으며, 2013 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미닛 리피터 칼리버 1731 을 출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전설적인 그랑드 소네리 컴플리케이션은 수년간의 연구 개발과 미세 조정을 통해 획득한 실증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다. 1992 년 최초의 그랑드 소네리 손목시계가 탄생한 이래, 오직 소수의 독립 매뉴팩처나 워치메이커만이 그러한 기술적 탁월함과 소형화 작업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새로운 모델에서 메종의 탁월한 노하우를 발휘해 직경 37mm, 두께 9.1mm의 공간 안에 그랑드 소네리와 뷔띠뜨 소네리, 미닛 리피터 메커니즘을 통합함으로써 시계 공학의 진정한 예술품을 완성한다.

기계식 시계의 노하우

최고급 시계 분야에서 독보적 희소성을 지니는 Les Cabinotiers *심포니아 그랑드 소네리 1860* 은 혁신적인 기술과 최고의 전통 수공예 기교를 상징하는 제네바 홀바크를 획득하였으며, 복잡한 기계식 메커니즘과 동력, 음향 기술을 완벽하게 통합한다.

양방향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인 매뉴팩처 바쉐론 콘스탄틴 칼리버 1860 의 727 개 부품은 숙련된 워치메이커의 수작업을 통해 미세 조정과 장식, 조립 공정을 완성한다. 그리고 단 한 명의 마스터 워치메이커가 500 여 시간에 걸쳐 고도의 전문성과 인내를 요구하는 이 모든 공정을 완성한다. 시, 분, 스몰 세컨즈, 그랑드 소네리, 뷔띠뜨 소네리, 미닛 리피터... 이 모든 기능을 통합한 구조는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이 시간과 분 표시 기능에 직접 연결됨을 의미하므로, 무브먼트 역시 통합적인 구동 능력이 요구되고 따라서 하루 96 번의 차임 기능을 작동하는 그랑드 소네리를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가



VACHERON CONSTANTIN

GENÈVE, DEPUIS 1755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한 솔루션으로 무브먼트와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을 위한 두 개의 배럴이 각각 72 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그랑드 소네리 모드에서 20 시간의 스트라이킹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혁신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한 이 정교한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기능을 선보인다. 먼저, 그랑드 소네리, 삐띠뜨 소네리, 무음으로 나뉜 세 가지 스트라이크 모드 옵션으로, 처음 도입된 30 도 회전 베젤을 돌려 마커가 케이스 측면에 새겨진 스트라이크-모드 인디케이터(PS, GS, SIL)를 가리키도록 하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미닛 리피터를 작동하는 푸쉬피스는 3시 방향의 크라운에 통합되어 있다. 손에 잡기 쉽도록 홈이 파인 대형 크라운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무브먼트를 와인딩하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을 위한 동력을 충전해준다.

이 복잡한 무브먼트의 또 다른 특징은 '팬텀' 쿼터를 제거한 것으로, 이는 두 개의 해머가 모노 블록의 공을 때려 울리는 차임벨의 조화와 규칙성을 구현하기 위한 매뉴팩처의 노력을 입증해 준다. 새로운 모델에는 일반적으로 시간과 분을 알리는 차임벨 소리 사이에서 감지되는 작은 무음을 일컫는 '팬텀 쿼터(phantom quarter)'가 없다. 한 시간, 15분, 1분을 알리는 어떤 소리든, 각 소리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며 차임 순서도 규칙적이고 매끄러우며 끊김이 없다.

또한,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은 드래깅이 없는 '기습적인' 점퍼-스프링을 탑재해 매시간과 15분에 정확히 차임벨을 울린다. 이 자율적인 장치는 시계가 차임벨 모드에 있을 때만 작동되므로, 동력을 절약하고 무브먼트의 정확성을 높여 준다.

칼리버 1860의 마지막 주요 특징은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이 기존 방식처럼 다이얼 아래 숨겨진 대신 시계 뒷면에 배치되어 랙, 필러-스핀들, 스네일 등의 부품을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모든 진보된 기술적, 음향적, 동력 관리 요소들은 정교한 칼리버 1860을 가장 복잡한 무브먼트일뿐만 아니라 가장 특별한 무브먼트로 만들어 준다.

간단하고 안정적인 사용법

그랑드 소네리 시계는 수백 개의 부품이 정교하게 맞물린 고도로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작동된다. 따라서 취급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한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모델을 편리하고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독창적인 안전 시스템을 고안했다. 이 안전 시스템은 시계가 다양한 기능을 보다 용이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상호 간의 방해 작용을 방지해 준다. 시간을 조정하는 동안 차임벨이 울리지 않으며(시간 경과 시 또는 설정 시 모두), 반대로 차임벨이 울릴 때는(리피터 차임 또는 '시간 경과' 시 차임) 스트라이크가 멈출 때까지 시간 조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다른 소리가 울릴 때는 새로운 차임벨 작동이 시작되지 않는다. 스트라이크 안전장치는 차임벨 소리가 울리는 동안 모드를 변경할 경우, 이전 차임벨이 완료된 후에만 변경된 모드가 실행되게 한다. 마지막으로, 배럴의 와인딩이 거의 풀려 차임벨을 규칙적으로, 마지막



VACHERON CONSTANTIN

GENÈVE, DEPUIS 1755

시퀀스까지 완벽하게 올릴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시간 경과나 설정 모드에 관계없이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진정한 맞춤 제작

시계의 디자인은 간결함의 정수를 선보인다. 순수한 라인의 18K 화이트 골드 직경 45mm 케이스 안에 복잡한 메커니즘을 담아내고, 케이스 측면은 맞춤 방식으로 제작된다. "유니크 피스"라는 문구가 새겨진 케이스백은 크라운의 돌기 모양과 동일한 모티프가 섬세하게 인그레이빙되어 있다. 메종의 역사적인 스트라이킹 포켓 위치에서 영감을 얻은 18K 솔리드 실버 톤의 다이얼은 세련된 절제미를 발산하며 은은한 실버 색감의 서클러 브러싱이나 스네일드 패턴의 피니싱, 바톤형의 화이트 골드 아워 마커와 핸즈, 두 개의 산화 처리된 블랙 컬러 포인트 등의 디테일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7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와 5시 방향의 파워 리저브, 뱀 모양의 핸즈로 표시되는 2시 방향의 스트라이킹 파워 리저브는 조화롭고 선명한 이미지와 함께 모던한 감각을 불어넣는다. 이 유니크한 모델의 케이스와 다이얼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Les Cabinotiers 에서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 그곳의 장인들은 '캐비노티에'로 불린 18세기 제네바 위치메이킹 장인들이 추구한 탁월한 기술력과 혁신, 맞춤 디자인의 전통을 구현하며, 위치메이킹 노하우와 맞춤 제작, 한정 생산 방식의 결합으로 매뉴팩처의 향구한 정신을 충실히 계승한다.

블랙 컬러의 악어 가죽 스트랩에 18K 화이트 골드 폴딩 버클을 매치한 Les Cabinotiers *심포니아 그랜드 소녀리 1860*은 다른 모든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마찬가지로 최고급 시계 품질을 상징하는 제네바 홀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시계의 출처와 정밀성, 내구성, 위치메이킹 전문성의 모든 면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는 이 독보적인 가치의 타임피스에 고급스러운 박스에 담겨 출시되며 차임벨의 소리와 조화를 증폭하는 장치인 "시간의 음악(Music of Time)" 공명 홀더와 함께 제공된다.

#VCSIH

#VCsymphonia

<http://sihh.vacheron-constantin.com>



VACHERON CONSTANTIN

GENÈVE, DEPUIS 1755

TECHNICAL DATA

Les Cabinotiers *Symphonia Grande Sonnerie 1860*

Reference	9200E/000G-B099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Exclusively available in Vacheron Constantin Boutiques
Caliber	1860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Bi-directional mechanical manual-winding 37 mm (1.6") diameter, 9.1 mm thick Movement power reserve: approximately 72 hours Strikework power reserve: approximately 20 hours 3 Hz (21,600 vibrations/hour) 2 barrels 727 components 74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small seconds at 7 o'clock Grande sonnerie Petite sonnerie Minute repeater Strikework mode display grande sonnerie/petite sonnerie/silence with a selection via the bezel Movement power-reserve indicator Strikework power-reserve indicator
Case	18K white gold 45 mm diameter, 15.1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Dial	18K gold, silvered opaline 18K white gold applied hours-makers and movement power-reserve indicator
Strap	Black <i>Mississippiensis</i> alligator leather with alligator leathe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Clasp	18K white gold folding clasp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Presentation box & accessory	Prestige model, delivered with the resonator of sound "Music of Time" enhancing the sound and the harmony of notes of the Vacheron Constantin minute repeater

Unique timepiece

« Pièce unique » and « Les Cabinotiers » engraved on the back of the timepiece